

임채영 목사의 참 믿음의 여정

1강 온전함의 시작

야고보서는 우리가 흔히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the General Epistles)이라 부르는 것 중 첫 번째 서신입니다.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서신들은 신약성경의 중요한 다른 서신들, 특히 바울 서신의 그늘에 거의 가려져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오해를 받아왔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제기되었던 정경성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 당시의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사상과의 마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교회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정경으로서 의심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당시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대표적인 율법주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以信得義> 교리를 들고나와 그와 같은 로마 교회의 오류에 정면으로 항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야고보서를 오해하여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 등의 중요한 복음적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1522년에 독일어로 출판된 그의 신약성경 초판에서 야고보서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부정적인 평가는 그 후 교회가 야고보서를 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제공하였고, 사람들이 야고보서 자체의 상황 속에서 해석하기보다는 바울 신학의 틀과 전제로부터 해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이것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차이점, 즉 수신자와 그들의 상황의 차이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칭의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반면,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칭의의 결과를,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구원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의 삼단계

- 1) 칭의(justification)의 단계
- 2) 성화(sanctification)의 단계
- 3) 영화(glorification)의 단계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구원을 삼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단계는 칭의의 단계(justification)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생겨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단계는 聖化(sanctification)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단계는 믿음 후에 따라오는 율법과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은 기독교 신앙은 삶을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을 위해 주어졌지, 삶이 신앙을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중요한 명제(약 2:17)도 종교적 덕목의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신앙으로 존재하지 않고 삶으로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삶의 향연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 단지 일상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자질구레한 일상을 하나님의 손길ियो 호흡으로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살아가야 합니다(골 3:23). 성화란 바로 이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지만, 우리는 아직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을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길은 신학자들의 증언대로 성화의 여로요, 영화의 여로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성화의 싸움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진지한 소망입니다. 진실로 새롭게 시작된 우리 믿음의 여정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의 치열한 흔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우리 주님의 품안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그분의 품안에서 깨어나는 순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그분을 닮아 있는가를 확인해 볼 텐데, 그때까지 주님을 닮도록 이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가야 합니다.

셋째 단계는 榮化(glorification)의 단계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함이란 야고보서의 궁극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온전함은 이 세상에서 완성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종말에 가서야 이를 수 있는 목표입니다.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보세요. 작고 불품없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정해진 유전자가 있어요. 곧 정해진 목적, 온전한 상태에 대한 그림과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변화되면서, 그 모습을 완성해 갑니다. 꽃으로, 열매로, 씨앗의 온전함은 열매입니다.

구원이란 천국에 가기 위한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입국 비자를 받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聖化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신앙의 관념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관념적으로 가졌을 뿐이지 실생활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말일 뿐이요 믿는 자 된 생활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는 불평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찬송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입으로 못된 소리 합니다. 믿음 생활을 성경공부 하는 것으로, 혹은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삽니다. 실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그야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따로 놓입니다. 관념적 신앙입니다.

-구원에 대한 두가지 극단적인 생각

- 1) 율법주의적 구원론
- 2) 율법 무용론

율법과 계명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극단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 율법과 계명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는 극단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율법 다음에 복음이냐? vs 복음 다음에 율법이냐?

율법과 복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복음이냐?'라는 식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과 율법이나'가 중요합니다. 율법은 복음의 뒤에 서야 합니다. 율법이 복음의 앞에 서면 복음은 죽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범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로 말미암은 율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순수한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의 앞에 있어도 구원에 문제가 생기지만, 율법이 믿음의 뒤에 서지 않고 그냥 무시되고 없어져도 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이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것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하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질 쳐야만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그 당시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복음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정통을 수립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열매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정확한 답은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아직 잎이 무성한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나무만 잎이 무성했습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잎과 함께 맺히는 특성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자,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의 유대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 없이 잘못된 율법주의로 인한 외식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교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 심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요. 오늘은 그 서론으로 1:1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흘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 1:1)

먼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스로 밝히기를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42회 정도 언급되는데 정리해보면 네 명으로 압축됩니다.

- 1) 가롯 유다와 구별하기 위하여 '야고보의 아들 유다(눅 6:16)'로 불리웠던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인데,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 2) 알패오의 아들(막 15:40)-작은 야고보로도 불리우는 사람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에 편지를 쓸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 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주후 44년경 헤롯 아그립파 1세에게 죽임을 당했으므로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4) 마지막,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게 된 사도 야고보인데요. 초대교회에서 유력한 위치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바울과 더불어 중요한 안건을 채택하고 결정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가장 유력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발신인이 나오고, 수신인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란 표현이 중요합니다. '흩어진'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신의 일차적인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 독자들로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했던 주후 34-35년경부터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부르는 그 이면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짐'은 다시 '모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사건, 곧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그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흩어짐'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이라는 말은 <δια>란 말과 <σπορά> 말의 합성어입니다. <δια>는 흩어진(scattered)이란 뜻의 말이고, <σπορά>는 씨앗(seed)입니다. '흩어진 씨앗들'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땅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세상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날을 기다리며 세상 속에 흩어져 살면서 당하는 온갖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씨앗에게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수신자들은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종교적인 환난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박해 아래 있었으며,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진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핍박과 가난이었습니다. 주류들에게 밀려서 변두리에 밀려나 있던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주님의 재림은 그들의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었고, 자연히 그들 중에는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주류사회를 향한 동경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마음을 둘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폭넓게 전파되었던 바울의 '이신득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신자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첨가물 정도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그저 믿음만이 중요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처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교회생활을 열심히

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함이란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구원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에게 상을 가져오는 공로가 된다고 오해해서 신앙의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다시 바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으신 씨앗인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씨앗들을 키워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이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열의를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